

일상과의 소통 모색하는 동양철학계의 소장학자들

동양철학 연구의 방법론적 혁신 외쳐...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 재해석하는 데 주력

동양철학계가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무장한 소장학자들의 활동으로

다채로운 이론들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독특한 관점과 해석학적 스타일을

기반으로 동양고전을 재해석한다. 문헌학적 진중함, 학문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서구의 이론과 경전의 개념을 이 땅의 특수성 위에서 소화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하려는 열정을 투사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동양철학을 새롭게 바라보려는 학계 내부의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무장한 소장학자들의 손을 거쳐 동양철학은 현실과 동떨어진 문자와 개념의 유희에서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현실 언어로 재탄생한다.

최근까지 동양철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마치 '천상'을 거니는 것과 같았다. 대학에 학계가 형성된 1960년대 후반부터, 학자들은 경전에 토씨를 다는 과거 선비들의 훈고학적 연구방법론을 똑같이 반복했고,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었다. 반면 학계 밖에선 방송매체와 책을 통해 대중에 접근하는 '지상파'들의 활동이 간헐적인 흐름을 이뤘다. 이 경우는 학문적 바탕 없이 발언하기 때문에 논리에 빈틈이 많았고, 무엇보다 시류에 편승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현실과 유리된 '유희'라는 점에서 이들은 일맥상통했다.

사회철학적 입장에서 동양철학 연구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고려대출판부)을 펴낸 이승환 교수(48, 고려대 철학과)는 이 양 극단 사이의 건강한 중간지대를 모색한다. 그것의 첫 단계로 이교수는 그동안 사회철학으로서 유가사상의 면모를 연구해왔다. 유가사상이 현실적 삶을 토양으로 해서 자라났고, 그에 대한 2000년 동안의 연구도 각 시대의 사회적 차원을 알게 모르게 반영해왔다는 것이다.

"텍스트를 아무리 잘 분석해도, 한 사상이가 처했던 시대의 정치·경제적 상황, 이념적·언어적 맥락을 읽어내지 못하면 시대착오적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어떤 사상이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여기에 '평가'가 붙지 않으면 '리포트' 수준에 그치게 되죠."

이교수가 국내 동양철학의 연구관행에 염증을 느끼던 1980년대 중반 국내 사정이 그랬다. 그것은 그가 석사학위를 받은 국립대만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후속공부를 위해 건너간 하와이대의 경우는 너무 해석학적 이해와 평가에만 치중해서 동양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간과했다.

"예를 들어 노자철학에 대해 논문을 쓴다고 합시다. 지금까지는 대개 노자의 형상사상과 지식론, 인생철학순으로 접근하고, 정치철학은 맨 마지막에 다뤘습니다. 이렇게 삶과 사상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자의 정치사회적 입지를 우선 다루고, 인생철학 등으로 넘어가는 게 바른 순서죠."

이교수는 사회철학의 관점에서 유가 사상을 볼 때, 그동안 동양철학에 결여된 것으로 여겨졌던 새로운 가치들인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개념, 자유주의와의 공존 가능성, 동양적 법적용의 특징 등을 새롭게 밝혀낼 수 있다고 본다.

이교수와 같은 3세대 학자군에 속하는 김교빈 교수(49, 호서대 철학과)는 동양철학 대중화에

일찍부터 힘써왔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양철학 에세이》(동녘)와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 한국철학(전3권)》(풀빛)은 그 결과물들이다. 그러나 김교수의 업적은 동양철학계에 타전공 학자들을 참여시키는 '공동연구' 시스템을 도입해 사유의 스펙트럼을 넓혀나간 데 있다.

타분야와 공동작업으로 연구 스펙트럼 넓혀

그가 상임대표로 있는 '학술단체협의회'는 1989년 인문사회 분야 21개 연구단체가 모여 발족했다. 그가 속해 있는 단체는 한국철학사상연구회인데, 이는 40대 중반의 동서양 철학 전공자들이 주축을 이루는 연구회로 매주 한 번 모임을 연다.

"우리의 힘으로 사유해서 구축한 사유체계가 바로 한국철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양철학도 '한국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한국철학이 될 수 있죠. 동서철학의 구분을 넘어서 전통과 현대의 접점을 모색하는 일이 오늘날 철학하는 사람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공동작업으로 얻은 성과물은 많다. 북한철학을 서양·전통·주체철학으로 나눠 정리했고 이것을 한국철학사에 포함시켜 《강좌 한국철학》(예문서원)을 펴냈다. 이 책은 김일성대에서 주체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독일 여성 철학자 헬가 피히테로부터 독일어·영어 번역을 제외받아 추진중이다. 《현대중국의 모색》(동녘)

은 “현실적 문제를 그 나라의 문화를 통해 고민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실천하는 방법”을 중국 문화열 논쟁을 통해 배워보기 위한 시도였다.

김교수 개인적으로는 일찍부터 ‘기철학’에 주목해왔다. 기에서 사회변혁의 논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서양인들이 동양철학의 유기체적 사유체계에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대는 해체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재구축을 위한 해체조. 동양철학은 해체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끈을 제공해줍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이야기되는 ‘대체의학’이 동양적 사유체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의 단적인 증거입니다.”

‘사회’ 보다는 ‘자기’에 더 비중 뒤

《왜 동양철학인가》(문학동네)를 펴낸 한형조 교수(42, 정신문화연구원) 또한 일상과 소통하는 동양철학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사람과 같은 반열에 든다. 하지만 유교의 가능성이 “치인(治人)의 사회과학이 아니라 수기(修己)의 인문학 영역에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관점이 다르다. 한교수의 경우 무게중심의 추가 사회보다는 ‘자아’에 있는 것이다. 철학사를 초점화하는 방식도 틀리다.

“동양철학은 자기 수양에 대한 의식과 가치의 흔적을 찾아나서는 일입니다. 해강의 경우 자아에 대한 근대적 사유의 가능성을 열어간 뛰어난 사상가입니다. 해강의 기학(氣學)은 경험적 사실만으로 타자와 소통하고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 책은 이런 관점에서 유학·불교·노장·법가·주자학 등의 핵심내용을 대중의 언어와 문학적 문제로 풀어낸다. 기존학계의 방법론 부재와 신진학자들의 경박성에 대한 비판의 목청도 높였다.

“그동안 동양철학은 문헌해독에만 치우쳤습니다. 텍스트를 ‘성전’으로 여겨 질문을 던질 줄 몰랐죠. 그런데 오늘날엔 정반대의 폐단이 나타납니다. 물음을 던지는 데는 과감하나 대답을 들으려는 자세나 훈련이 돼 있지 않죠.”

한교수는 ‘독학’ 했다. 동양철학에 대한 그의 문제제기는 ‘외제’ 답론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 아니라 경전과의 개인적 대면 과정에서 자각되고

성장한 것이다. 이번 책을 펴낸 1차 목적도 동양철학과 만나는 실존적 혹은 종교적 방식에 대한 탐구에 있었다.

정치철학으로서 동양철학 연구해

배병삼 교수(43, 성심외국어대)는 한국 정치사상을 전공했다. 배교수가 《논어》를 위시한 유가경전과 불교, 노장사상을 공부한 이유는 ‘한국’의 정치학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해방 이후 한국 정치학은 우리 삶의 바탕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해왔습니다. 실제 정치현장과 아카데미의 정치학이 크게 유리돼왔죠. 특히 1983년 경 마르크시즘 열풍이 불었을 때 이런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이 땅의 특수성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죠.”

배교수가 율곡과 다산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도 그들이 “이 땅의 삶에 보편이 적응해야 한다”는 도도한 믿음을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다. 보편이란 다름 아닌 중화중심주의적 사유체계를 말한다.

곧 문학동네에서 출간될 《논어(전2권)》는 21세기, 한국땅, 정치학이라는 세 좌표축 위에 시점을 고정시키고 《논어》를 번역한 것이다. 그림으로써 배교수는 전통의 이름으로 의식 속에 슬그머니 잠입한 ‘사이비 상식’을 많이 발견해냈다. 가령 효도와 충성의 항등식이 결코 논어적 연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에 그 기원이 있음을 밝혔다.

이동철 교수(44, 용인대)는 도가사상 전공자다. 그는 과거에 비해 도가사상 연구자층이 두터워졌고 새로운 자료에 대한 분석 시도도 활발해진 편이라고 학계 분위기를 전한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1973년 중국에서 발견된 《황제사경》을 대상으로, 황노학(黃老學) 계열의 도가사상을 파악하고자 한 시도였다. 황노학 계열의 문헌에서 이교수는 도가사상이 다른 학파와 대결하고 영향받으면서 《노자》를 새롭게 해석한 흔적을 발견해냈다.

“국내 도가사상 연구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중요한 고전과 국내의 연구성과를 번역·소개하



동양철학에 대한 대중들의 높은 관심은 마스크의 영향이 크지만, 그 이면에는 대중과 소통하고자 한 전공자들의 학문적 뒷받침이 있었다. 현실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동양철학의 본질적 화두로 인식한 학계 내부의 이런 움직임은 동양철학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흐름에 밝은 등불을 비추고 있다. 상단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승환 교수, 김교민 교수, 한형조 교수, 배병삼 교수, 이동철 교수.

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도가사상에 대한 철학적·주제적 접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의학이나 미학같은 다양한 분야와 대화해 철학의 지평을 넓혀나가고 싶습니다.”

도가사상은 현대문명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이교수는 주장한다. 천지자연(天地自然)의 생태주의, 곡신불사(谷神不死)의 페미니즘, 소국과민(小國寡民)의 반제국주의 등으로 근대성의 오류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시대와 관련해서는 기술의 구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유방식, 심미적 세계관을 꼽는다.

이상의 소장학자들은 자신의 스타일로 ‘성전’이었던 동양철학을 ‘고전’으로 읽고 재해석해낸다. 이들은 하나같이 동양철학이 ‘현실’과 함께 호흡하는 학문으로 거듭나야 함을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문헌학적 진중함, 학문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서구의 이론과 동양철학의 개념을 각자의 언어로 번역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 땅의 특수성 위에서 소화하고 새로운 의미로 뽑아내려는 열정을 투사한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 강성민 기자